연예뉴스 스테이션

최진혁, 군 훈련 중 무릎 부상…입원 치료 중



경기도 한 부대에서 복무중인 연기자 최진혁(사진)이 훈련 도중 무릎부상을 당해 16일 현재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최진혁 소속사 레드브릭하우스 관계자는 이날 "최근 훈련중 부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 빨리 완쾌해 자대에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군 생활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는데 부상 소식을 알리게 돼 안타깝고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군 입대 전에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 추후 회복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진혁은 3월31일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7번방의 선물' 수익금 정산 분쟁…양측 합의

영화 '7번방의 선물' 수익금 정산을 놓고 벌어진 60억 원 배당금 청구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 공동제작사 A와 B사는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성립시켰다.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누적 관객수 1281만 명, 총 매출액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B사는 A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A사는 약정을 맺은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B사는 작년 8월 배당금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사는 B사에 46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내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임달화 회고전

중국 배우 런다화(임달화)가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회고전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한국에서 영화 '도둑들'로 잘 알려진 런다화는 1980년 데뷔 이후 20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온 중국어권 대표 배우다. 회고전에는 런다화가 직접 선택한 다섯 편의 작품과 최신작 1편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7월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영화제 홍보대사로는 배우 오연서와 권율이 선정됐다.

영화단체 대표들 영진위 항의 방문…불통 비난

국내 영화계 단체 대표들이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파행적인 정책을 펼치며 불통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16일 영진위를 항의 방문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부산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서울프라이드영화제,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의 단체들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화부장관의 사과 및 영진위 부위원장 사퇴 등 영화계의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서를 영진위에 전달했다. 대표단은 자신들의 요구가 실행되지 않으면 영진위원장을 비롯한 9인 위원회의 총사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돈, FNC와 전속계약 "착한 콘텐츠 부합"



개그맨 정형돈(사진)이 FNC엔터테인먼트(FNC)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FNC는 16일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정형돈의 가치관이 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과 부합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형돈이 합류함에 따라 FNC는 송은이 이국주 문세윤에 이어 인기 예능인 라인업을 확충하게 됐다. 2002년 KBS 1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형돈은 MBC '무한도전',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등에 출연하며 사랑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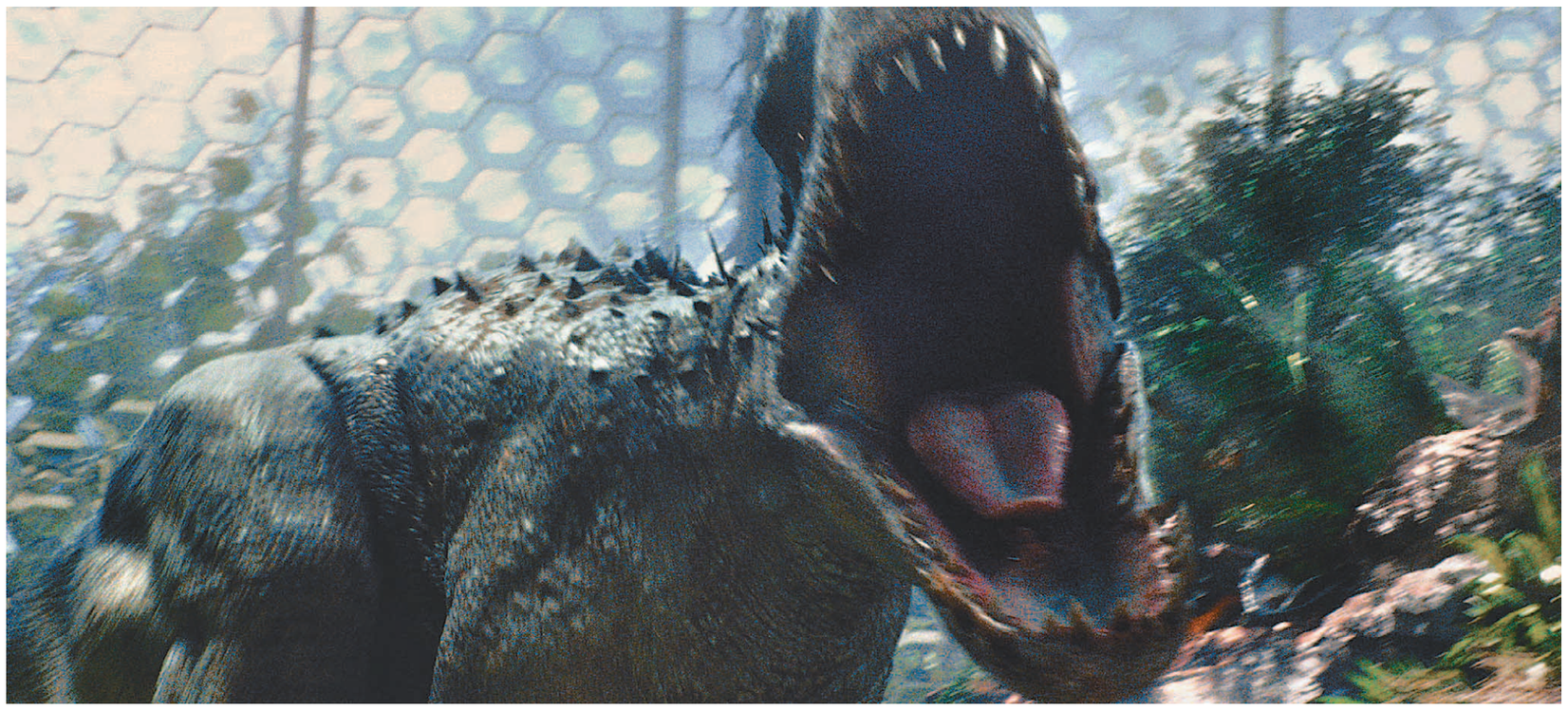
음악 랭킹

1위 음악 정보보기

6월 8일~6월 14일, 자료: 멜론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뱅뱅뱅	BIGBANG
2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백아연
3	WE LIKE 2 PARTY	BIGBANG
4	LOVE ME RIGHT	EXO
5	LOSER	BIGBANG
6	마음	아이유
7	꺼내 먹어요	Zion.T
8	BAE BAE	BIGBANG
9	그리고 안녕	이승기
10	우연히 봄	로꼬, 유주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16일까지 누적관객 200만명을 모은 영화 '쥬라기 월드'의 한 장면. 공룡을 다시 부활시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60여개국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제공 | UPI코리아

'쥬라기 공원' 삼킨 '쥬라기 월드'

뉴스 인사이드

개봉 닷새 만에 누적관객 200만명 돌파
1993년 '쥬라기 공원' 열풍 재연 분위기
티라노·헨리 박사 재등장 1편 향수 자극
신인 감독에 연출 맡긴 스필버그의 혜안

'쥬라기 월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히트 상품'이다.

11일 개봉한 영화가 16일 누적관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1993년 시리즈 1편인 '쥬라기 공원'이 관객을 사로잡은 뒤 그 열풍이 22년 만에 재연되는 분위기다. 16일 현재 한국을 포함해 67개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상상 속 공룡이 부활해 펼치는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지지는 그만큼 변함없이 뜨겁다. 오히려 영화에 관한 다양한 관심이 수수께끼처럼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티라노사우루스, 22년간 생존

가장 뜨거운 관심 대상은 시리즈를 상징하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티라노)다. 그 포악성으로 1편의 팬들을 경악케 했던 그(?)가 '쥬라기 월드'에 짧지만 강렬하게 재등장해 관객을 사로잡는 극적인 '추억 유발 장치' 역할을 해낸다.

이런 티라노를 두고 22년 전 관객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공룡인지, 아니면 새로 복제된 '신생'인지 의견과 해석도 분분하다. 정답은 22년간 생존한 티라노가 맞다. 연출자 콜린 트레보로 감독은 "1편에서 티라노가 보여준 묵직한 존재감을 잊지 못 한다"며 "시리즈 팬이라면 티라노를 가장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작과 신작 관통하는 1인

이번 영화에서 티라노의 활약은 향후 제작될 후속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로 통한다. 물론 제작진은 "후속편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믿기 어려운 분위기다. 티라노와 더불어 또 한 명의 히든카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동양인 헨리 박사를 연기한 중국배우 BD웡이다. 시리즈 출연진 가운데 이번에 재출연한 배우는 그가 유일하다.

헨리 박사는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화석이 된 모기의 피에서 DNA를 추출해 공룡 복원에 성공한 과학자로 '쥬라기 월드'를 가능케 한 결정적 인물이다. 트레보로 감독은 "헨리 박사는 22년 전 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일하게 아는 인물로, 원작과 이번 영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그 사이 청년에서 중년이 된 BD웡의 모습은 이 시리즈가 쌓은 시간의 힘을 확인케 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왜 신인에게 연출 맡겼나

이름도 낯선 신예 콜린 트레보로 감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쥬라기 월드'의 기획자이자 1, 2편의 연출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존재감 없는 신인에게 제작비 2400억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를 과감하게 맡겼다. 의외의 선택은 '각본' 실력에 거는 기대 덕분이었다.

트레보로 감독은 2012년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당시 영화제에서 이 작품을 보자마자 자신이 구상하는 '쥬라기 월드'의 연출자로 그를 택했다. 그리고 연출에 앞서 각본부터 맡겼다. 현재의 흥행세만 보면 그의 선구안은 통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온 몸으로 즐기는 음악…지금은 EDM 시대

〈일렉트로닉댄스뮤직〉

'울트라 코리아' EDM 축제 11만명 운집
록페스티벌 초대…전문 레이블 등장도

'클럽음악'으로 알려진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이 국내 주류 음악시장에서 서서히 인정받고 있다. 하우스, 덥스텝, 테크노 등 전자댄스음악을 총칭하는 EDM은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비주류로 통했다. 하지만 EDM 사운드의 노래가 꾸준히 나오고, 클럽과 파티문화가 확산되면서 각종 음악축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흐름이 가장 확연한 곳은 음악페스티벌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12·13일 펼쳐진 EDM 축제 '울트라 코리아 2015'에는 메르스 여파에도 이틀간 약 11만명이 다녀갔다. 2012년 첫 무대는 5만5000명을 동원했지만 재작년 10만명 등 관객이 크게 늘고 있다. '월드 DJ페스티벌' '글로벌 게더링 코리아' '하이네켄 프레젠트 스타디움' '워터 밤' 등도 잇따라 열린다. 7~8월 안산M밸리록페스티벌과 인천펜타포트록스티벌 등에도 케미컬브라더스, 프로디지 등 EDM밴드가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출연한다.

또 다른 주축은 DJ들. 구준엽과 박명수가 각각 DJ쿠, 지팍이란 이름으로 페스티벌 무대에서 주목받은 지 오래다. DJ한민은 클럽가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빠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춘자, 원투 등 가수들도 DJ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열기는 주류시장에도 번지고 있다. 1990년대 가요계를 지배했던 댄스음악이 바로 하우스, 테크노 등 EDM이라는 점에서 귀에 익지만 최근 변주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싸이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이 EDM을 기반으로 했다. 샤이니 '뷰', 지드래곤X태양 '굿보이' 역시 멜로디를 걷어내면 그 한 종류인 딥하우스가 된다.

'EDM전문 레이블'을 표방하는 기획사도 등장했다. 뉴타입이엔티라는 기획사로, 작년 12월 박선주와 'LBC 프로덕션'이라는 프로듀싱팀을 내세워 '선라이즈'를 발표했다. 7월에는 프로듀서 돈스파이크와 DJ한민이 결성한 '액소더스'라는 EDM듀오가 데뷔한다.

EDM의 확산은 젊은층의 자기중심적인 문화소비 트렌드와 무관치 않다. 뉴타입이엔티 박세진 대표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을 찾는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에게 EDM은 온 몸으로 즐기게 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쉽게 다가간다"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기대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연평해전'과 맞붙은 '소수의견'

개봉일 하루 앞당겨 24일 공개
'연평해전'과 흥행 맞대결 성사



영화 '소수의견'(사진)이 개봉일을 하루 앞당겨 24일 이야기를 공개한다. 사전 시사회를 통해 모은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같은 시기 개봉하는 다른 영화들과 자신 있게 경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계상과 유해진이 주연한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제작 하리마오픽쳐스)은 당초 25일 개봉을 준비해왔다. 보통 개봉 영화가 목요일에 공개되는 데 맞춰 일정을 짜 왔지만, 계획을 수정하고 수요일로 날짜를 당겼다. 제작관계자는 16일 "치열한 법정드라마로 완성된 이야기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소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이 개봉일을 하루 앞당기면서 이달 말 극장가에서는 이색적인 흥행 '빅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당초 11일 개봉하려던 김무열·이현우 주연의 '연평해전'(감독 김학순·로제타시네마)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개봉을 24일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관객 앞에 공개된다.

'소수의견'은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과 경찰의 대치 도중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모티프를 얻은 영화다. '연평해전'은 2002년 서해상에서 일어난 남북교전의 실화를 그렸다. 서로 다른 시선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두 영화의 흥행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싸이 7집, 올 여름엔 나올까

5월 대학축제 돌며 영감 얻어
중국 상하이서 신곡 작업 한창



'이번 여름엔 기필코!'

가수 싸이(사진)가 현재 중국 상하이에 머물며 신곡 작업에 한창이다.

16일 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싸이는 요즘 곡 작업에 한창 속도를 내고 있어 3년 만의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한바탕 지구촌을 휩쓴 이후 '연속 히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3년째 작업 중'이지만 올해 여름에는 반드시 정규앨범을 발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다.

'강남스타일' 이후 지난 3년간 '젠틀맨' '행오버' 두 곡의 디지털 싱글을 내놓은 싸이는 2013년부터 곡 작업에 매달려왔다. 따라서 앨범에 담을 곡은 상당수 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여름에는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해놓고 발표 직전 미루기도 했다.

싸이는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신곡에 대한 영감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면서 5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대학을 돌며 축제 무대에 올랐다. 특히 무더위를 날려줄 신나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사랑받아온 '여름 사나이'인 만큼, 올해 여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곡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뒤 내세운 '월드 스타일'을 버리고 올해 초 '아시아 스타일'로 새 앨범의 지향점을 바꾼 상황. 그의 새로운 결과물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김원겸 기자